속초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초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와 협약을 하고 지역 내 주요 거점 공영주차장 11곳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42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속초시가 보유,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72기에서 114기로 늘어났다.

속초시의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는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충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추가된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 33기와 완속 충전기 9기로, 다양한 운전자의 이용 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급속 충전은 이동 중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한 편리성을 높여주고, 완속 충전은 장시간 주차 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충전을 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속초시는 총 114기의 충전기를 갖추게 돼 시민과 관광객 모두 한층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승용과 화물차 등 총 137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속초시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무료접종) 순차적 실시

평창군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오는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무료 접종)을 차례대로 시행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보건기관 또는 관내 위탁의료기관(13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 접종은 대상에 따라 기관이 구분된다. 미취학 아동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진부 연세내과의원, 한사랑의원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는 보건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단,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문의해야 한다.

접종 일정은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22일부터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 및 임신부(산모 수첩 등 서류 지참)는 9월 29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70~74세 어르신은 10월 20일부터 ▲65~69세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평창군 조례에 따른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평창군 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및 수용자(등록 시설 한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0월 15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제21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막, 역대 최대규모

역대 최대규모 기업·기관 139개사, 해외바이어 160여 명 참여

의료기기 수출 전국 수출 2위 달성, 일본과 미국 글로벌 삼각벨트 구축 목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월 18일(목)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과 해외바이어가 참여한 「제21회 강원 의료기기전시회(이하 GMES)」가 개막했다고 밝혔다.

2006년 '강원 메디컬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GMES는 매년 수출계약 실적을 경신하며 강원의 대표적 해외수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지난 해에는 2,469만 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개막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종현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전시회는 기업·기관 139개사와 해외바이어 160여 명, 참관객 1,000여 명이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비즈니스 중심에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로 확대되어 참관객이 제품의 기능·성능·편의성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은 일본 고베, 미국 보스톤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삼각벨트를 꿈꾸고 있다"며, "최근에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인구가 6배 많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 수출 2위를 달성한 효자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이어 올해는 400억 원 규모의 실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 기세를 이어 여러분과 힘을 합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진태 지사는 GMES에 꾸준히 참가해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의료기기 기업 ▲㈜뉴풍('15./초음파수술기기), ▲㈜메쉬('06./체열진단기), ▲㈜엔케어('06./열전도치료기)에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전했다.

㈜뉴풍('15./이재용 대표): 의료용 초음파 수술기기 / 2024 GMES 최고 수출실적(83만달러) 달성

㈜메쉬('06./이정훈 대표): 체열진단기 / ('23) 13억원 → ('24) 16억원(증3억원) 매출신장

㈜앤케어('06./한승범 대표): 열전도 치료기 / ('23)32억원 → ('24) 46억원(증14억원) 매출신장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은 30년 전 산업 불모지에서 도와 시, 대학, 기업, 병원 등 유관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했으며, 초창기 5개 기업에서 현재 188개 기업이 의료기기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실적은 전국 2위로, 국내 대형 의료기기 기업이 밀집한 서울(960개 사)을 제친 성과도 기록했다.

* 1위 경기(39.9%/2조8천억원), 2위 강원(14.2%/1조200억원), 3위 서울(12.8%/9천2백억원)

한편, 도는 AI 등 첨단기술과 융합한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조성 등 각종 지원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시,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동해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득기준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하며, 고액 자산가나 금융소득이 많은 가구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제외된다.

신청은 지급 시작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첫 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지정 은행(신용·체크카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지역사랑상품권)에서 가능하다. 1차때와는 달리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 제시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또한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 품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외신청이 허용되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유흥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민석 기자

2025 찾아가는 양구 청춘마켓 운영

양구군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2025 찾아가는 양구 청춘마켓'을 오는 9월 20일과 27일, 양일간 춘천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광장에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약 25개의 판매 부스를 통해 양구군의 우수 농·특산물이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된다.

판매 품목은 양구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메론, 꿀, 삶은 시래기, 햅쌀을 비롯해 장아찌, 오미자즙, 두유, 전통주, 한과 등 다양한 가공·특산품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현장에서는 농산물 판매 외에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D펜 체험, 페이스페인팅,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더불어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장터 물품 구매 시 영수증 확인을 통해 경품권을 증정하고, 당일 현장에서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방문객들의 흥을 돋우는 노래자랑 무대도 열려 현장을 찾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양구군은 이번 청춘마켓을 통해 복잡한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비용을 줄이고, 양구군만의 특색 있는 직거래 장터 브랜드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횡성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접수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농가당 최대 9명까지 가능

횡성군은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주간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작 면적에 따라 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수요 조정이 불가하므로 내년도 인력 수급이 필요한 농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농가별 신청 인원과 경작 규모 등을 고려해 2026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접수에는 해외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포함된다.

다문화 가족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가 본국 가족을 일정 기간 초청해 농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 한편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총 1,31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운영하고 있다. 군은 농가 수요를 조사해 법무부와 협의, 필요한 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인력난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관내 농가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화천군 가족센터, 가족소통 육아지원 역할

개관 후 첫돌을 앞둔 화천군 가족센터가 군민들의 행복지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해 9월, 화천읍에 화천군 가족센터를 준공 후 개관했다.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전달체계 역할은 물론, 다양한 자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센터는 가족관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과 자녀 이중언어 교육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 가족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과 취업을 돕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검사 및 치료, 초등자녀 성장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군 특화사업인 다문화가족 여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운영 중이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또래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함께 학습과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눔터에는 공동육아 공간이 운영되고, 부모교육은 물론 자녀를 위한 미술과 오감놀이, 놀이체육, 성장요가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자녀를 둔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